



“대동세상 위해”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전야제에서 광주시민·대학생·풍물패로 구성된 1000명의 테마 퍼레이드팀이 가로 1.5m, 세로 10m의 대형 태극기를 들고 “대동세상”을 외치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30주년 추모열기 절정

옛 도청앞 빗속 전야제...민주묘지 참배 줄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갈등 행사위 “기념식 따로 치를 것”

5·18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추모 열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17일 저녁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전야제에는 붉은 빗줄기 속에서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5·18의 고귀한 정신을 기렸다.

〈관련기사 3·6·7·16면〉 시민들은 ‘기억하라! 맞서라!’를 주제로 열린 전야제에서 자녀들과 함께

손에 우산을 받쳐들고 ‘5월 영령’들을 추모했다. 또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주먹밥 만들기’와 난장 등 다양한 기념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30년 전 광주시민들의 “대동정신”을 기렸다.

전야제는 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들이 보여줬던 숭고한 희생정신과 저항정신을 되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1부 ‘현실’, 2부 ‘기억’, 3부 ‘5월 그날’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야제는 ‘518인 합창단’이 옛 전남도청 옥상과 무대 등에서 선보인 대규모 합창으로 시작됐으며, 가수 신해철과 일본 우타고에 합창단의 공연으로 1부의 막이 올랐다.

2부에서는 5·18의 진상규명 투쟁을 형상화한 복춤과 비보이 세계 1위 팀 ‘익스트림 크루’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3부에서는 민중가수 안치환이 전

야제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으며, 시민들은 전야제의 에필로그인 ‘대동세상’에서 한데 어우러져 ‘5월 정신’의 부활을 기원했다.

본 행사에 앞서 학생, 시민 등 1천여명으로 구성된 풍물단은 광주역, 조선대학교, 광주공원에서 각각 출발, 옛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만나 주무대까지 굿판을 벌이며 거리행진을 펼쳤다.

같은 시각 금남로에서는 30여개의 동호회가 참여하는 난장 및 마당극과 동화, 함일운동, 4·19 혁명, 5·18, 대동세상을 주제로 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또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이날 3만여명의 참배객들이 영령들의 넋을 기렸으며,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과 상무대 영창 등 사적지에도 학생들과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5·18민주묘지에서 ‘5월 단체’ 단체 대표들과 박광

태 광주시장,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가 열렸다.

한편, 5·18민주항쟁 30주년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국가보훈처 주관의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사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도 본 행사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 별도로 기념식을 치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사위원회와 ‘5월 단체’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를 본 행사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보훈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념식에서도 이 노래를 식전 행사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갈등을 빚어왔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민주당 지지도 50% 이하로 떨어져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강운태 61%, 박준영 63.5% 선두

光州日報·한국리서치 지방선거 지지도 조사

6·2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역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의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와 박준영 전남지사가 여전히 선두를 달렸다.

〈관련 기사 4면〉

이는 본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광주·전남 유권자 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였다.

광주시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5.3%, 국민참여당 4.6%, 한나라당 1.9%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33.4%였다.

광주시민들의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2008년 총선 당시의 득표율(비례대표) 70.39%보다 무려 22.89%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역대 선거 지지를

70~90%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전남도민들의 민주당 지지가 55.4%에 달했으나, 이 또한 지난 총선 득표율 66.88%보다 11.4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이어 민주노동당(6.9%), 한나라당(3.1%), 국민참여당(2.2%) 순이었다.

민주당의 지지를 하락은 정권 재창출 실패 이후 보여준 무능과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터져 나온 각종 공천 잡음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가 61.1%, 박준영 전남도지사 후보가 63.5%를 기록해 선두를 질주했다.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는 강운태 후보에 이어 국민참여당 정찬용(9.0%), 한나라당 정용화(5.0%), 민주노동당 장원섭(4.2%), 진보신당 윤난실(2.0%), 평화민주당 조흥규(0.8%)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사 후보의 경우는 멀찌감치 앞서가는 박준영 후보의 뒤를 민주당

동당 박용두(7.5%), 한나라당 김대식(5.0%), 평화민주당 김경재(4.1%) 후보가 추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처음 직선으로 치러지는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경우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후보와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후보가 1위를 고수했다. 광주시교육감 후보 지지도는 안순일(17.2%)과 이정재(13.1%)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고, 그 뒤를 장휘국(8.4%), 김영수(6.3%), 고영을(4.7%) 후보가 추격하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후보 지지도는 장만재 후보가 20.6%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김장환(7.2%)과 김경택(5.1%), 서기남(4.6%), 신태하·윤기선(각 4.4%), 권영표(2.9%) 후보 등이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모름·무응답 층이 광주시 교육감 50.2%, 전남도 교육감 50.8%로 절반을 넘어 이들의 향배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도 반민주 무소속 연대 확산

순천, 광양 등 전남지역에 이어 광주에서도 일부 구청장 후보와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민주당에 맞서는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광주에서 무소속 후보 연대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남구와 서구, 북구 등이다.

송태종 광주시의원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 등 7명은 17일 무소속 연대로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무소속 황일봉 남구청장 후보와 전주천 서구청장 후보를 앞세운 무소속 시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들도 정책공조와 함께 선거운동을 연대해 펼치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 홍보 책자, 차량, 선거 사무원 의상, 모자 등의 디자인도 함께 하는 등 사실상 유권자들에게 ‘무소속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전략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무소속 연대는 지역 간의 ‘횡적인 연대’가 아닌 지역 내에서 ‘종적인 연대’에 나서 무소속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무소속 구청장과 시의원, 기초의원 후보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활용해 상대방 후보를 서로 지지해주는 ‘품앗이 선거운동’을 통해 민주당 바람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과 달리 무소

속 구청장과 시의원, 기초의원 후보들의 기조가 저마다 다른데다,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점에서 무소속 연대의 효과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3일 노관규 순천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신정훈 전 나주시장, 부인 주향득 후보, 이성웅 광양시장, 이철 장성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등이 무소속 연대를 선언했으며 순천시와 광양시 등에서는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와 무소속 지방의원 후보들이 연대에 나서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워달라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 교육의 요망!

광신대학교

법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오늘의 인텔리에게는 건강이다
Hugreen

휴머니즘 인텔리어 Hugreen

국호여유의학